



아시아 주요국 사망보장 격차 현황¹⁾

최예린 연구원

2019년 기준 아시아 주요국 사망보장 격차는 77조 달러로, 이는 가장이 조기 사망한 후 경제적으로 필요한 보장의 약 63.9%임. 사망보장 격차는 생명보험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침투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작게 나타남. 스위스리는 사망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상품 다양화, 생명보험 가입 인식 제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2019년 기준 아시아 주요국 사망보장 격차(Protection Gap)는 77조 달러로, 이는 가장의 조기 사망 이후 필요한 보장의 약 63.9% 수준임

- 사망보장 격차란 가장의 조기 사망 이후 남은 가족구성원의 생계를 위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보장, 즉, 조기 사망한 가장의 기대 수입 및 가계부채에서, 현재 보유한 현금 및 예금, 부동산 또는 임대수입, 기타 자산, 생명보험 등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 스위스리가 실시한 사망보장 격차 설문조사는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요 10개국 14,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됨
- 2019년 기준 아시아 주요국 사망보장 격차는 매년 약 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가계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사망보장 격차



자료: Swiss Re(2020. 7. 28), "Closing Asia's Mortality Protection Gap"

1) Swiss Re(2020. 7. 28), "Closing Asia's Mortality Protection Gap"을 발췌, 요약함

■ 필요보장 대비 사망보장 격차는 생명보험 가입 경험이 없거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²⁾ 신흥국의 필요보장 대비 평균 사망보장 격차는 약 74.5%로, 현재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 중 생명보험의 비중이 가장 작음
- (선진국)³⁾ 선진국의 필요보장 대비 평균 사망보장 격차는 약 53.2%로, 현재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 중 생명보험과 실거주지를 제외한 부동산(또는 임대수입)의 비중이 가장 큼
- 이러한 차이는 신흥국 소비자가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생명보험 가입 경험이 없기 때문임
 - 2019년 기준 신흥국 5개국 평균 생명보험 침투율은 약 2.7%, 선진국 5개국 평균 생명보험 침투율은 약 7.6%임⁴⁾
- 한편, 필요보장 대비 평균 사망보장 격차의 차이는 각 국가별 경제환경과 문화, 종교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 스위스리는 사망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보장 격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생명보험상품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스위스리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에 커피 한 잔 수준의 보험료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쉽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높은 보험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또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사망보장 격차 규모를 계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사망보장 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대상 조사 결과 중대질병, 입원비, 사고, 의료비 상환 등 소비자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옵션이 결합되었을 때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스마트폰 등 중개인이 없는 판매채널을 통해 필요로 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맞춤형 상품을 개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보험 침투율이 대체로 낮은 신흥국의 경우, 소액보험 또는 미니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보험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kiri**

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3)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5개국

4) Swiss Re(2019. 7. 4), "sigma 3/2019"